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문장부호를 붙이기 위한 예비적 논의

전무용*

1. 들어가는 말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배용 성경은 1911년에 처음 번역될 때부터 당시에 사용되던 한국어 문체를 채택하여 문장부호 없이 번역되고 출판이 되었고, 현재의 『개역개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본문에 사용된 문장부호로는, 세로쓰기 시대 때 쉼표처럼 사용이 되던 ‘모점’이 가끔 사용된 것이 거의 전부다. 1967년에 『신약전서 새번역』이 나오면서부터 성경에 현대적인 개념의 문장부호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1977년의 『공동번역 성서』에서도 문장부호가 사용되었다. 그즈음 『개역한글』 성경에도 문장부호를 붙이는 작업이 시작되어서, 1979년에 『신약전서 개역』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¹⁾ 그런데 이 성경은 사실상 한국 교회로부터 별로 큰 호응을 얻지 못했고, 성경전서로는 출판되지 않았다. 전통적인 성경 본문과 그 문체에 익숙한 독자들은 문장부호가 없어도 성경을 읽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조사 어미가 문법의 중심이 되는 언어여서, 문장부호가 없어도, 문장에 사용된 조사 어미만으로도 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문장 종결 형식만 보아도 평서형 문장인지 감

* 한남대학교에서 국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전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국장. kbsjmy@daum.net.
1) 나채운, 『우리말 성경 연구』(서울: 기독교문사, 1996), 272, 574; 나채운, “개역성경, 개정판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미션매거진』 2007. 9. 29., http://www.missionmagazine.com/main/php/search_view.php?id=1467 (2024. 1. 23.). 『신약전서 개역』(1979)은 본문도 590 곳을 개정하였다.

탄형 문장인지 의문형 문장인지가 구분이 된다. 문장 속에 인용된 문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문장부호 없이도 알 수 있다. 또 전통적인 성경의 옛 문체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독자들은, 문장부호가 있어도 ‘-라’ 종결 형식의 문장이 낯설고 어려워서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1983년경부터 시작된 새로운 성경 번역은, 1993년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이 출판되면서 완료된다. 한국 교회 전체를 두고 보면, 일부 교회들은 새로운 번역을 예배용으로 받아들였지만, 다수의 교회들은 『개역한글』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학생 청년 등 옛 문체의 성경체 문장이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새로운 현대 한국어 번역이 대안이 되었다.

그 당시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 교과서를 비롯하여 모든 출판물이 [문교부고시 88-1]을 따라 새로운 맞춤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학생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맞춤법과 다른, 엄밀히 말하면 당시의 맞춤법 원칙에 맞지 않는 성경을 읽는 현실이 된 것이다. 성경 본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설교문이나 해설을 쓸 경우, 예를 들면 본문에서는 ‘우뢰’로 적고, 해설에서는 ‘우레’로 적어야 하는 현실이어서, 성경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연적으로 새로운 맞춤법을 성경에 적용해서 개정해야만 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이다.²⁾ 이때의 개정에는 문장부호를 성경에 반영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역 성경의 문체가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문장부호가 없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현대적인 개념의 문장부호가 있는 성경이 필요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현대 한국어로 번역한 성경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시대가 변하면서, 전통적인 개역 성경 독자들에게도 문장부호가 있는 성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개역개정』이 한국 교회의 예배용 성경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음 세대 사람들도 이 본문 사용자 계층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왜 성경에는 문장부호가 없느냐는 질문이 새로운 세대의 성경 독자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한성서공회에서는 그러한 질문들에 부응하여 『개역개정』에 문장부호를 붙인 성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³⁾

2) 박동현, “한글 성경 번역과 보급의 역사”, 대한성서공회 편, 『한글 성경 번역과 보급의 역사: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서울: 대한성서공회, 2015) 참고.

3) 권의현, “2023 성서사업 보고”, 『성서한국』 69:4 (2023), 4-5;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개정의 필요성”, <https://youtu.be/j0u5FYQ-Lw4?si=6roXOdnJAHQe9Ds> (2024. 1. 23.).

이 글에서는 『개역개정』에 문장부호를 붙이는 일을 위해서, 1979년에 출간된 문장부호가 적용된 『신약전서 개역』을 중심으로, 논의에 필요한 또는 문제가 되는 일부 본문들을 중심으로, ‘문장부호가 있는 개역개정판’을 준비할 때 생각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본문 또는 비교 본문으로는 종종 KJV를 사용한다. 한국어 성경보다 우위에 있는 성경이어서가 아니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번역에 문장부호를 반영한 번역이기 때문이다.

2. 성경 본문에 문장부호를 붙일 때 고려할 사항

2.1. 한글 성경과 문장부호

개역의 전통을 잇는 한국 교회의 예배용 성경은, 처음 출간된 때로부터 이제까지 문장부호가 없이 출판되어 왔다.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 사용되던 일반 한국어 문장에서 문장부호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그대로 성경 번역에 반영된 것이고, 그것이 성경체 문체로 형성되어 이제까지 유지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다 종결형’의 짧은 문장에 익숙해진 현대의 성경 독자들은, 문장부호 없는 입말체 형식의 전통적인 성경체 문장이 어렵다. 문장부호가 있으면 부호만으로도 전체 문장의 형식을 알 수 있는데, 문장부호가 없으면 내용을 읽어야 형식을 알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문장을 다 읽고,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외국어 해독하듯 다시 문장을 돌아보아야 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문장 형식이 이중 인용을 넘어서 삼중 인용까지 이르게 되면, 다시 보아도 쉽지 않다.

문장부호가 없는 성경에 익숙한 독자들은, 문장부호가 들어가면, 그 문장부호들이 오히려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다. 문장부호가 없어도, 본문을 읽으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장부호를 넣는다 해도 ‘**최소한으로**’ 넣는 것이 기존 성경 독자들을 좀 더 배려하는 길이다. 이에 비해서, 처음 성경을 읽는 새로운 독자로나, 성경체 문장에 익숙하지 않은 성경 독자들에게는, 성경 본문이 필요로 하는 문장부호를 ‘**충실하게**’ 넣어 줄 필요가 있다. ‘최소한’과 ‘충실하게’라는 서로 다른 요구를 바탕으로 문장부호를 넣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장부호를 많이 넣은 성경과 적게 넣은 성경, 이렇게 두 가지 형식의 성경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일이다.

개인의 문장이라면, 글을 쓰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문장부호를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문장부호 해설』을 출간해서, 누구나 보고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⁴⁾ 그러나 “의문의 정도가 약하면 물음표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는데, 의문의 정도가 강하고 약함은 글쓴이의 의향에 달려 있다.”고 하거나, “감탄의 정도가 약하면 느낌표 대신 마침표나 쉼표를 쓸 수 있다. … 감탄의 정도가 강하고 약함은 글쓴이의 의향에 따라 정해진다.” 하여, 규칙에 따라 문장부호가 정해지지 않는 ‘의향’의 영역이 있다. ‘의향’이나 ‘정도’가 강한지 약한지 정하는 판단은 주관적인 영역이다. 그런데 개인의 문장이 아닌 성경 본문의 경우에는 작업자의 주관적 의향에 따라서 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성경에 문장부호를 넣는다면, ‘글쓴이의 의향’보다는 좀 더 ‘객관성 있는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또는 저렇게 달리 쓸 수 있는 경우에, ‘객관성’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물음표나 느낌표의 경우, ‘**발화의 현장성**’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이, 그 전 화자가 한 말을 ‘내용만 전한다’고 생각하면, ‘발화의 현장성’을 살리지 않아도 그만이다. 말하는 현장이 분명히 제시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객관적이다. 간접인용의 경우나, 텍스트 인용의 경우는, 발화의 현장성이 살아 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 외치거나 소리치는 맥락이라면, ‘발화의 현장성’이 분명히 표현되어야 ‘**내용에 맞는 형식**’이 된다.

국립국어원의 『문장부호 해설』은 ‘-다’ 종결형의 현대 문장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말은 없지만, 성경을 비롯해서 『홍길동전』이나 『춘향전』 본문과 같은 옛 문체의 문장을 보기 문장으로 든 사례가 없다. 그러므로 한 문장의 길이가 거의 반 페이지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과 같은 전통 문체의 문장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한 문장 속에 여러 층위의 문장이 이어져 있을 경우에, 쉼표 한 가지만으로 단선적으로 이를 구별해서 표시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립국어원의 『문장부호 해설』을 넘어서야 할 경우가 생긴다. 상황에 따라서 ‘**상위의 쉼표**’와 ‘**하위의 쉼표**’를 구별해서 표현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단순히 개역 성경의 번역 본문의 문체 특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만이 아니라, 입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고문서인 성경 원문 텍스트 자체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4) 국립국어원, 『문장부호 해설』 (서울: 국립국어원, 2014).

2.2. 영어 KJV 본문의 문장부호와 쉼표의 층위 구분

우리말이 조사 어미를 중심으로 문장의 문법성이 드러나는 데 비해서, 영어의 경우 어순을 중심으로 문장의 문법성이 드러난다. ‘-이라’ ‘-이나’ ‘-이도다’ 등과 같이 문장 종결형만 보아도 평서문인지 감탄문인지 의문문인지가 변별이 되는 우리말과는 달리, 영어의 경우 어순과 문장 형식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이것이 구별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경우에는 문장에서 문장부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KJV의 경우 원 본문을 보면 문장부호들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문장부호는 후대로 오면서 조금씩 변화되기도 한다.⁵⁾ 아래에서 1611년 KJV와 1769년의 KJV를 구약과 신약에서 임의로 선택해서 한 구절씩 비교해 본다.

KJV(1611) Gen 8:1-5

And God remembred Noah, and euery liuing thing, and all the cattell that was with him in the Arke: and God made a winde to passe ouer the earth, and the waters **asswaged**. 2 The fountaines also of the deepe, and the windowes of heauen were stopped, and the raine from heauen was **restrained**. 3 And the waters returned from off the earth, continually: and after the end of the hundred and fiftie dayes, the waters were **abated**. 4 And the Arke rested in the seuenth moneth, on the seunteenth day of the moneth, vpon the mountaines of **Ararat**. 5 And the waters decreased continually vntill the tenth moneth: in the tenth moneth, on the first day of the moneth, were the tops of the mountaines scene.⁶⁾

KJV(1769) Gen 8:1-5

And God remembered Noah, and every living thing, and all the cattle that was with him in the ark: and God made a wind to pass over the earth, and the waters **asswaged**; 2 The fountains also of the deep and the windows of heaven were stopped, and the rain from heaven was **restrained**; 3 And the waters returned from off the earth continually: and after the end of the hundred and fifty days the waters were **abated**. 5 And

5) 이환진, “<서평> Translation That Openeth the Window: Reflections on the History and Legacy of the King James Version” (David G. Burk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3,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9), 『성경원문연구』 29 (2011. 10.), 179-205; 이환진은 이 서평에서 KJV의 본문 변화에 대해서 논한 이 책의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다.

6) https://www.kingjamesbibleonline.org/1611_Genesis-Chapter-8/ (2024. 1. 19.).

the waters decreased continually until the tenth month: in the tenth month,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were the tops of the mountains seen.⁷⁾

『개역한글』 창 8:1-5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 하사 바람으로 땅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고** 2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3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일백 오십일 후에 **감하고** 4 칠월 곧 그 달 십칠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5 물이 점점 감하여 시월 곧 그 달 일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KJV(1611) Mat 5:21-22

Yee haue heard, that it was saide by them of old time, Thou shalt not kill: and, Whosoever shall kill, shalbe in danger of the **judgement.** 22 But I say vnto you, that whosoever is angry with his brother without a cause, shall be in danger of the Iudgement: and whosoever shall say to his brother, Racha, shal be in danger of the counsell: but whosoever shall say, Thou foole, shalbe in danger of hell fire.⁸⁾

KJV(1769) Mat 5:21-22

Ye have heard that it was said by them of old time, Thou shalt not kill; and whosoever shall kill shall be in danger of the **judgment:** 22 But I say unto you, That whosoever is angry with his brother without a cause shall be in danger of the judgment: and whosoever shall say to his brother, Raca, shall be in danger of the council: but whosoever shall say, Thou fool, shall be in danger of hell fire.

『신약전서 개역』 마 5:21-22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위 KJV 본문에서, 1611년 본문은 창세기 8:2-3, 3-4 사이를 마침표로 구분

7) <대한성서공회 USB 성경> 제공 본문에서 검색. 이하 같음.

8) https://www.kingjamesbibleonline.org/Matthew-Chapter-5_Original-1611-KJV/.

하고 있고, 1769년 본문은 이곳을 쌍반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역한글』 본문의 번역을 볼 때, 마침표가 찍힐 자리는 5절 끝 “보였더라”이고, 그에 상응하는 서술어는 1절 끝 “감하였고”와 4절 끝 “머물렀으며”가 된다. 이들 두 자리에 쉼표를 쓰면, 그보다 하위의 쉼표 자리들에는 쉼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보다 하위의 자리에 쉼표를 쓰려면, 상위의 자리에는 층위를 구분하여 쌍반점(;)을 써야 할 것이다. 층위를 구분하지 않고 쉼표를 쓰면, 쉼표가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기능을 한다.

『개역한글』 창 8:1-5

하나님이 …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고; 2 … 창이 막히고 … 비가 그치매, 3 …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 후에 감하고, 4 …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5 물이 점점 감하여 … 봉우리가 보였더라. (문장부호 필자, 층위를 구분하여)

『개역한글』 창 8:1-5

하나님이 … 육축을 권념하사, …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고, 2 … 창이 막히고, … 비가 그치매, 3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 후에 감하고, 4 …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5 물이 점점 감하여, … 봉우리가 보였더라. (문장부호 필자, 층위 구분 없이)

하나 마침표 안에 있는 문장이 길 경우, 위 『개역한글』 창세기 8:1-5 본문에 문장부호를 넣어 본 것처럼, ‘차 상위’의 쉼표 자리와 ‘차 하위’의 쉼표 자리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상위의 층위에 쌍반점을 써도, 위에 쓴 쉼표보다 더 하위의 연결 본문들에는 문장부호를 넣지 못했다. 이 경우 차 하위 쉼표 자리에는 문장부호를 생략해야 부호가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층위를 구분하여 쉼표를 넣어 본 위의 보기 본문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한 동사들이 차 하위의 쉼표 자리이다. “권념하사”는 “불게 하시매”와만 호응하고, “감하였고”나 그 뒤의 서술어들과는 호응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경우에는 내용상 시간적 순차성이 있어서 그나마 낫지만, 안은 문장과 안긴문장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독서를 방해할 정도로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 쌍반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장 상위의 자리에만 쉼표를 넣고, 차 하위의 자리에는 쉼표를 넣지 않아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문장부호가 없는 성경을 읽어오던 독자들을 배려한다면, 그래서 최소한으로 문장부호를 넣는다면, 이처럼 ‘한 문장 안에서 가장 상위의 쉼표 자리에만 문장부호를 넣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문장에 쌍점이나 쌍반점을 넣는 것은 국립국어원의 『문장부호 해설』에는 없는 용법이다. 이것은 ‘-다’ 종결 형식의 현대문을 기준으로 만든 문장 규칙이다. 그러나 짧은 현대문을 기준으로 만든 문장부호 사용법에 얽매어서, 문체가 전혀 다른 성경체 문장의 문장부호 사용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문장부호는 ‘내용에 맞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본문이 필요로 하는 문장부호’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개역과 같은 성경체 문체는 ‘그 문체에 맞는 형식’을 찾아서 적용해야 한다.

앞의 KJV 두 본문의 문장부호의 차이는, 어떻게 해야 본문 내용에 어울리는 문장부호를 붙일 수 있는지 고심한 결과가 문장부호의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⁹⁾ 이 경우 기준은 ‘본문이 필요로 하는 문장부호’이다.

KJV 마태복음 5:21에서는, 1611년 본문은 쌍점(:)으로만 구분하였고, 1769년 본문은 쌍반점(;)과 쌍점(:)으로 구분하였다. 문장부호가 달라졌다. 영어 본문은 한 문장을 구분하는 문장부호로, 쉼표와 쌍점과 쌍반점 세 가지를 쓰고 있다. 이에 비해서 문장부호가 있는 『신약전서 개역』 본문은 마침표보다 하위의 문장부호로 쉼표만 사용하고 있고, 피인용문을 작은따옴표로 표시하고 있다. 이 경우의 문제는, 마침표에 상응하는 가장 상위의 서술어 자리의 쉼표와, 그보다 하위의 자리에 들어갈 쉼표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의 『신약전서 개역』 마태복음 5:21-22를 분석해 보면, 21절 끝과 22절 끝이 같은 층위의 서술어이다. 22절 안에 있는 쉼표들을 보면, 다시 “이르노니,”에 있는 쉼표가 차 상위의 쉼표가 되고, “받게 되고,”와 “잡히게 되고,”에 있는 쉼표들은 차 하위의 쉼표가 된다. 빗금(/)으로 쉼표의 층위를 구분해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약전서 개역』

21 옛 사람에게 말한바 //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

9) 어떻게 해야 원문에 더 가까운 본문이 될 것인지를 함께 고려한 결과겠지만, 여기서는 논의의 핵심이 아니므로 내용까지 다루지는 않는다.

21-22절만을 두고 보아도, 세 층위의 쉼표가 뒤섞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쉼표들을 기준으로 해서는 문장 구조를 들여다볼 수 없다. 이에 비해서 KJV(1769) 본문의 문장부호를 보면, 가장 하위의 자리에 쉼표(.)를 썼고, 그보다 상위의 자리에 쌍반점(;)을 썼고, 대등 나열의 성격이 있는 차 상위의 자리에 쌍점(:)을 썼다. 그래서 문장부호를 바탕으로 본문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이들 모두 ‘본문의 필요에 따른 문장부호 사용’이라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신약전서 개역』(1979)의 문장부호 사용의 문제들

3.1. 피인용문의 문장부호

위 마태복음 5:21 본문의 경우, 작은따옴표로 구분된 피인용문 안에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앞의 문장에는 마침표를 넣고, 뒤의 문장에는 마침표를 넣지 않았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두 문장이 문법적으로 동등한 자격의 문장인데, 뒤쪽은 작은따옴표와 중복이 된다는 이유로 마침표를 넣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문법적 일관성’이 없는 문장부호 사용이다. 작은따옴표는 마침표를 대신할 수 없다. 전혀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¹⁰⁾ ‘문법적 일관성’은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없는 원칙적인 개념이다. 기분이나 느낌의 문제로 이렇게 저렇게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자리에 물음표나 느낌표가 온다면 더욱 생략할 수 없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다.

『신약전서 개역』 마 12:23-25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24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25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10) 이에 대한 선행 논의는, 전무용, “성서 번역과 국어 문체 — 쉼표와 인용법을 중심으로”, 왕대일 편,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 주석과 성서 번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389-412 참고.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위 예시 본문 23절에서는 피인용문이 의문문으로 끝나니까 문장부호를 넣었고, 24절에서는 피인용문이 평서문으로 끝나니까 마침표를 생략했다. 의문문이든 평서문이든, 한 문장의 지위가 동등한데, 평서문의 마침표만 생략한 것은 문법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문장부호가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서 문장부호를 넣거나 빼서는 안 된다.

간단하게 살펴보아도, ‘**본문 자체가 필요로 하는 문장부호**’와 ‘**문법적 일관성이 있는 문장부호**’라는 중요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문장 사용자의 취향이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 원고의 처음 머리말에서 문장부호가 없는 성경 본문을 읽어온 독자들에게 대한 배려를 말한 바 있다. 그래서 문장부호를 최소한으로만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운다 해도, 작업자의 작업 경향에 따라서 쉼표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의 다른 작업자가 문장부호를 붙이는 작업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문법적 일관성’에 바탕을 둔 ‘문체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3.2. 모점과 쉼표

‘모점’은 문장의 구조와는 상관이 없이, 같은 속성의 개념들이 나열될 때 사용한 문장부호이다. 이들은 현대의 문장부호에서 마침표 하위의 단위로 사용되는 쉼표와는 성격이 다르다.

『개역한글』 마 19:18-19

18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위 보기에서 보듯, 모점은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전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또 위와 같이 도해하여 보면, 모점이 차 하위 단위의 문장부호인 것이 쉽게 드러난다. 한 문장 안에서 사용되는 쉼표의 층위를 구분할 필요는, 전통적인 개념의 모점이 쉼표로 사용된

본문에서는 더 분명하다. 아래 11절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보인다.

『신약전서 개역』 계 1:9-16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2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 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13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

9하반절부터 16절까지, 긴 문장의 맨 마지막 종결형 16절의 “같더라”에 상응하는 문장 속 가장 상위의 서술어가, “있었더니” “들으니” “하시기로” “보았는데” 정도이다. 마침표를 중심으로 그와 동등한 지위의 서술어에만 쉼표를 넣는다 하면 이들 네 동사 뒤에만 넣고, 그보다 하위의 쉼표는 모두 생략해야 한다. 그런데 11절에는 옛 모점에 해당하는 쉼표가 있어서, 상위의 쉼표 자리와 하위의 쉼표 자리가 충돌한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위의 쉼표를 줄여서 해결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

→ 11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 11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다행스럽게도 이 본문은 단순한 나열이기 때문에 쉼표를 빼도 큰 문제가 없고, 쉼표 대신 그 자리에 접속조사 ‘-와/과’를 넣어도 문제가 없다. 13절-16절 사이에는 다시 13절 “띠고,”와 15절 “소리와 같으며,”가 차 하위의 쉼표 자리이다. 14-15절 본문은 “눈 같으며,” “불꽃 같고,” “주석 같고,” 등이 나란히 15절 “소리와 같으며,”에 상응하는 차 하위의 자리이다. 그러므로 차 하위의 자리에는 쉼표를 빼야 한다. 상하 개념 없이 시간의 순차를 따라

쉽표를 쓸 수 있는 곳에 모두 쉽표를 써 나가면, 위의 『신약전서 개역』 본문과 같이 되겠지만, 쉽표에서 상하의 층위를 구분하지 않으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의미 단위로 호응하는 본문인지 알 수 없게 된다. KJV의 이 본문을 보면, 차 상위의 자리에서 문장을 끊고 쌍점과 쌍반점까지 씌으로써 그보다 하위의 자리에 쉽표를 쓸 수 있도록 했다.

KJV(1769) Rev 1:9-16

I John, who also am your brother, and companion in tribulation, and in the kingdom and patience of **Jesus Christ**, was in the isle that is called Patmos, for the word of God, and for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10 I was in the Spirit on the Lord's day, and heard behind me a great voice, as of a trumpet, 11 Saying, I am Alpha and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and, What thou seest, write in a book, and send it unto the seven churches which are in Asia; unto Ephesus, and unto Smyrna, and unto Pergamos, and unto Thyatira, and unto Sardis, and unto Philadelphia, and unto Laodicea. 12 And I turned to see the voice that spake with me. And being turned, I saw seven golden candlesticks; 13 And in the midst of the seven candlesticks one like unto the Son of man, clothed with a garment down to the foot, and girt about the paps with a golden girdle. 14 His head and his hairs were white like wool, as white as snow; and his eyes were as a flame of fire; 15 And his feet like unto fine brass, as if they burned in a furnace; and his voice as the sound of many waters. 16 And he had in his right hand seven stars: and out of his mouth went a sharp twoedged sword: and his countenance was as the sun shineth in his strength.

그런데 이처럼 문장 안에 쌍반점을 사용하는 것은 한글 사용자들에게는 익숙한 방법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본문이 필요로 하는 문장부호를 쓰기로 한다면, ‘문법적 일관성’을 전제로 하여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성경 본문의 문장부호 사용 방식이, 일반인들의 문장 사용 방식을 앞장서서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적게 쉽표를 사용한다면, 마침표와 상응하는, 또는 마침표와 평행하는, 가장 상위의 서술어에만 최소한으로 쉽표를 넣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여러 문장이 길게 이어져 있는 개역의 문체를 생각한다면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있겠지만, 문장부호 자체가 아직 낯선 개역 성경의 기존 독자들을 배려한다면 이 방안은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엄밀하게 생각하면 과도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본문이 필요로 하는 문장부호를 ‘충실히’ 쓰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일반 성경 독자들이 문장부호 사용에 좀 더 익숙해질 때를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현 단계에서 이 본문을 사용할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 원칙을 세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사용자들이 부담을 느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궁극적이거나 이상적인 방안들은 ‘비현실적인 방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¹¹⁾

아래 본문은 모점이 하위의 쉼표가 되는 구조의 문장인데, 위 사례처럼 모점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이다.

『신약전서 개역』 고전 12:8-11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뉘 주시느니라.

KJV 1Co 12:8-11

For to one is given by the Spirit the word of wisdom; to another the word of knowledge by the same Spirit; 9 To another faith by the same Spirit; to another the gifts of healing by the same Spirit; 10 To another the working of miracles; to another prophecy; to another discerning of spirits; to another divers kinds of tongues; to another the interpretation of tongues: 11 But all these worketh that one and the selfsame Spirit, dividing to every man severally as he will.

『신약전서 개역』 고린도전서 12:8에서는 예전의 ‘모점’은 쉼표로 살려 두었고, 문장의 마지막에 마침표만 찍었다. 이 본문의 경우 본문의 특성상 ‘모점’을 생략할 수는 없다. 그런데 문장 구조로 보면 문장 마지막의 “나뉘 주시느니라.”에 상응하는 서술어는 10절 끝의 “주시나니”이다. 그러므로 가

11) 이 본문에서 9상반절은 하반절의 진술을 위하여 전체를 제시하는 본문이다. 그러므로 9상반절 “동참하는 자라.”는 내용상 “동참하는 자라서.” 정도의 본문이며, 내용상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되어야 하는 본문이다. 이는 개역의 문장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없이, 또 원문에 대한 검토 없이, 피상적으로 ‘-라’ 종결형 본문으로 보고 문장부호를 잘못 적용한 사례이다.

장 상위의 자리에만 쉼표를 넣는다면 당연히 “주시나니”에 들어가야 하지만, 더 하위의 자리에 쉼표를 꼭 써야 하니까, 상위의 쉼표 자리에는 문장부호를 쓰지 않았다. 마침표에 상응하는 자리에 쉼표를 넣는 원칙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달리 표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본문에는, ‘본문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리’에 문장부호를 넣어야 한다.

위의 KJV를 보면, 가장 상위의 자리인 10절 끝에는 마침표에 상응하는 쌍점(:)을 넣었고, 그보다 차 하위의 자리에는 쌍반점(;)을 넣었고, 그보다 하위의 자리인 11절 중간에 쉼표를 넣었다. 이 경우 문장부호만 보아도 전체 문장 구조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약전서 개역』 고린도전서 12:8의 경우, 문장을 읽으면서 다시 따로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혼란 없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모점이 있는 거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난다.

다음 보기 본문은 『문장부호 해설』에서, “짜을 지어 구별할 때 쓴다.”¹²⁾고 규정되어 있는 사례에 해당되는 본문이다.

『신약전서 개역』 마 10:2-4

열 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4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 개역 본문은 『개역개정』과도 번역은 같고, 거기에 문장부호만 추가된 것이다. 먼저, “시몬을 비롯하여,”에 쉼표를 넣었는데, 이 쉼표는 본문을 잘못 읽고 잘못 넣은 것이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라는 본문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대응이 되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시몬과 안드레가 하나의 쉼표 단위로 묶여야 하는데, “비롯하여,”에 쉼표를 넣음으로써,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결과를 만들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이렇게 쉼표를 넣어야 본문 자체의 의미를 따라 쉼표가 적용이 된다. 사실상 번역에서 “안드레와”를 “안드레,”로, ‘-와’ 대신 모점을 넣어 번역했다더라면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번역의 미비함이 쉼표의 오류로 이어진 사례다.

쉼표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문제는 『새번역』에서도 보인다.

12) 국립국어원, 『문장부호 해설』, 21.

『새번역』 마 10:2-4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3 빌립과 바돌로매와 도마와 세리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와 4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위 보기에서 “시몬과,”에 붙은 쉼표는 사실상 잘못된 것이다. 이 본문은 두 사람씩 짝지어서 표현된 본문이다. KJV를 보면, 쉼표와 쌍반점을 함께 써서 이러한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다.

KJV(1769) Mat 10:2-4

Now the names of the twelve apostles are these; The first, Simon, who is called Peter, and Andrew his brother; James the son of Zebedee, and John his brother; 3 Philip, and Bartholomew; Thomas, and Matthew the publican; James the son of Alphaeus, and Lebbaeus, whose surname was Thaddaeus; 4 Simon the Canaanite, and Judas Iscariot, who also betrayed him.

GNT⁴ Mat 10:2-4

Τῶν δὲ δώδεκα ἀποστόλων τὰ ὀνόματά ἐστιν ταῦτα· πρῶτος Σίμων ὁ λεγόμενος Πέτρος καὶ Ἀνδρέας ὁ ἀδελφὸς αὐτοῦ, καὶ Ἰάκωβος ὁ τοῦ Ζεβεδαίου καὶ Ἰωάννης ὁ ἀδελφὸς αὐτοῦ, 3 Φίλιππος καὶ Βαρθολομαῖος, Θωμᾶς καὶ Μαθθαῖος ὁ τελώνης, Ἰάκωβος ὁ τοῦ Ἀλφαίου καὶ Θαδδαῖος, 4 Σίμων ὁ Καναναῖος καὶ Ἰούδας ὁ Ἰσκαριώτης ὁ καὶ παραδοὺς αὐτόν.

쉼표를 단선적으로 보고 문장의 진행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에 모두 찍으면, 문장의 구조를 알 수 없게 만들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될 수 있고, 엄밀하게 보면 위 보기와 같이 오역으로 귀결될 수 있다.

4. 『개역개정』 본문에 문장부호를 붙인다면

앞에서 이미 ‘본문이 필요로 하는 문장부호’와, 이 본문을 사용할 ‘독자가 필요로 하는 문장부호’라는 두 길을 말했다.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개념으로 ‘문법적 일관성’을 말했다. 그리고 ‘문법적 일관성’에서 반걸음 물러난다면, 언어 사용 현실을 고려하여 문장부호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원칙

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4.1. 문장부호의 많고 적음 및 발화의 현장성

앞에서 문장부호를 ‘최소한으로’ 넣는 것과 ‘충실하게’ 넣는 것을 말한 바 있다. 문장부호를 넣은 『신약전서 개역』을 보면 문장부호가 필요한 곳에도 많거나 사용이 잦다고 느껴지면 생략한 곳이 있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문장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자주 나온다고 줄이는 것은 아니다. ‘많고 적음’이나 ‘자주’라는 것은 문법적인 개념이 아니다. 또한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객관적인 기준도 아니다. 눈으로 문장을 보다가, 짧은 문장이 반복되어서 문장부호가 자주 나온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임의로 줄이는 것은 문법적인 방식이 아니다.

『신약전서 개역』 마 9:22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위 예문에서 보면 “딸아” 부분은 독립성분이어서, “안심하라”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문장부호가 생략되었다. 두 글자의 한 어절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름말이다.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으로 보면 쉼표라도 넣어야 하고, 전 인격적으로 상대를 부르고 있다는 맥락을 생각하면, 느낌표를 써도 충분한 맥락이다. 여인을 부르고 나서 아무런 시차 없이 곧바로 “안심하라!” 하고 말했을 수도 있고, 한두 호흡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안심하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 주어진 본문만으로 이것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문장부호를 생략할 정도의 가벼운 맥락은 아니다.

“구원하였다”에도 문장부호가 없는데, 이 부분은 내용상 대단히 엄중한 선포다.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선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여인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선포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용의 무게로 보아 느낌표를 붙이기에 충분한 맥락이다. 이렇게 엄청난 선포에 느낌표를 붙이는 것은 전혀 문장부호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문장부호가 많거나 적거나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사안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에 어울리는 형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맥락이다. 발화의 현장성을 생각할 때, 외침이나 감탄이나 의문 등 말하는 현장의 분위기를 살려야 할 맥락이 있겠지만, 이처럼 ‘**내용상의 무게**’로도 현장성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4.2. 어순을 고려한 문장부호

다음 본문은, 원문의 순서를 따르는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어로는 도치문이 된 경우이다.

『신약전서 개역』 마 23:2, 39

2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 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KJV Mat 23:39

For I say unto you, Ye shall not see me henceforth, till ye shall say, Blessed is he that cometh in the name of the Lord.

GNT⁴ Mat 23:39

λέγω γὰρ ὑμῖν, οὐ μὴ με ἴδητε ἀπ’ ἄρτι ἕως ἂν εἴπητε, Εὐλόγημένος ὁ ἐρχόμενος ἐν ὀνόματι κυρίου.

위 39절의 작은따옴표 속의 문장은 2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 속에 피인용문으로 들어 있는 부분이다. 원어에서 이 본문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말 번역도 두 문장이라기보다는 도치문의 성격이 있는 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본문의 성격을 생각하면, 위 본문은 상반절과 하반절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와 같이 쉼표로 구분할 수 있다. 도치문의 선행 구절 다음에 쉼표를 쓰도록 한 것은 현행 『문장부호 해설』에도 있는 내용이다.¹³⁾ 또한 이렇게 하면, 마지막 감탄부호의 성격이 쉼표로도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문의 내용과 형식에 더 잘 어울리는 문장부호가 될 수 있다.

이 본문은 쉼이 없이 같은 속도로 소리를 내서 읽어 나가자면,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부분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아닌데도 바로 앞뒤로 이어져 있어서, 시간을 두어 띄어서 읽지 않으면 틀린 문장처럼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 너희는, ‘찬송하리로다,’”와 같이 ‘너희는’ 다음에 쉼표를 넣어 주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 줄 필요

13) 국립국어원, 『문장부호 해설』, 20: “(11) 도치문에서 도치된 어구들 사이에 쓴다.”

가 있다.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따옴표가 일정하게 구분을 해 주기는 하지만, 쉼표와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

4.3. ‘의문의 정도’ ‘감탄의 정도’의 객관화

앞에서 일차 소개한 대로, 국립국어원, 『문장부호 해설』에서 말하고 있는 “의문의 정도가 약하면” 또는 “감탄의 정도가 약하면” 물음표나 느낌표 대신 마침표나 쉼표를 쓸 수 있다고 한 기준을 객관화 또는 등급화 할 수 있을까? “정도가 강하고 약함은 글쓴이의 의향에 따라 정해진다.”고 했는데, 이 기준은 말 그대로 전적으로 주관적이다. 이것은 느낌표에서도 같다. “느낌표: (2) 특별히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어구,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에 쓴다.”

개인의 문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성경 본문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면 바로 위아래나 앞뒤에서도 달리 적용될 수 있고, 작업자에 따라서, 또는 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공동의 작업에서 따를 수 있는 원칙이 될 수 없다.

앞에서, ‘발화의 현장성’을 하나의 기준으로 말했는데, 이것은 ‘글쓴이의 의향’보다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또 ‘본문 내용이 필요로 하는 형식’이라는 점을 말했는데, 판단은 작업자의 몫이 되겠지만, 엄밀하게 보면 이 또한 ‘내용’이 ‘현장성을 요구하는지’ 하는 점으로 귀결된다.

『신약전서 개역』 마 26:45-46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46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위 본문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앞뒤로 두 번 나오는 ‘보라’이다. 이 말은 그리스어 원문 자체에서도 ‘(눈으로) 보아라!’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말 ‘자,’ 하는 정도의 발어사에 가까운 말이다. 이 말이 ‘무엇인가를 보아라!’ 하는 내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위 두 사례 모두, 읽는 이의 느낌과 무관하게, 발어사 정도의 용법이다. 내용에 따라서 ‘보라’ 또는 ‘보아라’로 번역하더라도, 다른 문장과의 연계 없이 이 말만 독립적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마침표 정도로 표현할 수 있고, 다른 문장 앞에 발어사에 가깝게 쓴 경우라면 쉼표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앞뒤에서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는데, 앞 절에서 먼저 나온 말은 느낌표로 쓰고, 다음 절에 나온 말은

쉽표로 쓴 것은, 차이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 외치거나 강하게 감정을 드러내서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매우 긴박하고 엄숙한 상황이다. 목소리의 어조가 높지 않더라도, 무감각하고 평이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거운 감정이 실려야 하는 맥락이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온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령형이든 청유형이든, 담담하게 마침표로 처리하기는 어렵다. 마침표는 내용에 맞는 형식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맨 마지막의 “왔느니라”까지도 느낌표를 넣어도 좋을 만큼 무겁고 심각한 상황이다. “왔느니라”에도 느낌표를 넣을 수 있는 배경이 벌어사 ‘보라’이다. 이 벌어사에 담긴 느낌을 문장 끝에 실는다면, “왔느니라”에도 느낌표를 넣을 수 있다. 이러한 정도의 맥락이라면, 마침표로 느낌을 중화시키기보다는, 느낌표로 상황을 강조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문장부호 해설』에서 “강한 느낌”이라고 한 규정을 ‘엄중한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엄중하다. ‘내용’에 대한 판단이나 엄중함에 대한 판단은 결국 작업자의 주관의 영역에 있기는 하지만, ‘글쓴이의 의향’보다는 좀 더 객관화해서 생각할 수 있다.

대개의 문장부호 작업은,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기보다는, 현장과는 이중 삼중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아주 중립적인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가볍게 여기기가 쉽다. 그러나 본문이 전해 주는 당시의 현장은, 안락하고 중립적인 사무실이나 연구실의 일이 아니다. 경전으로서의 텍스트에 머물면서 생각할 일이 아니라, 텍스트를 통해서 당시의 현장까지 들어가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역사의 현장은 언제나 담담하고 사무적이고 중립적인 곳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경전 본문은 스토리텔러의 스토리처럼 이야기성이 있기는 하지만, 본문이 전하는 상황은 엄정한 역사적 현실이다. 이야기성에 머물러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 텍스트의 ‘현장성’을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한다.

5. 나가는 말

국립국어원의 『문장부호 해설』은 매우 상세해서, 그것을 따르면 거의 모든 경우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다만 개역의 성경체 문장처럼 한 문장이 매우 길어서 ‘상위’의 쉽표 자리와 ‘하위’의 쉽표 자리가 한 문장 안에 여러 층위로 섞여 있을 때, 『문장부호 해설』에서 쉽표를 쓰도록 규정한 모든 자

리에 쉼표를 넣는다면 쉼표가 문장 구조 파악을 방해할 수 있다. 쉼표가 오히려 본문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또 글 쓰는 사람의 ‘의향’을 전제로 한 규정의 경우에는, 개인의 글이 아닌 성경과 같은 공적인 문장에 문장부호를 넣을 때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문장부호를 ‘충실하게’ 넣을지, ‘최소한으로’ 넣을지 하는 점도 문장부호 규칙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짧은 논문에서 다양한 상황을 모두 들어서 일일이 살필 수는 없었다. 여기서는 특징적인 상황들을 나타내는 본문 몇몇 곳을 찾아서, 그 본문들의 문장부호들을 살피면서, 나머지 전체 본문에 문장부호를 붙이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논의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만 해도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례들을 두루 살펴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점은 한계다. 여기서 다룬 본문들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본문들은 아니지만, 성경 본문에 문장부호를 붙인다면 어떠한 점들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갈피를 잡을 수 있는 실마리는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장부호를 붙이는 작업의 원칙에 해당되는 결론:

- 1) 개역 성경 본문의 문체에 맞는 형식을 생각해야 한다.
- 2) 본문이 필요로 하는 문장부호를 생각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성경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문장부호를 생각해야 한다. 서로 다른 이 두 필요 사이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한다.
- 3)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필요한 문장부호를 충실하게 넣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4) 현재의 성경 독자들을 고려하면,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만큼만 넣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엄밀하게 생각하면 ‘과도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 5) 가능하면 ‘글쓴이의 의향’과 같은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이 필요로 하는 형식이라는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 6) 문장부호가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부호의 양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문법적 기준을 따라서 문장부호를 붙여야 한다. ‘문법적 일관성’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 7) ‘발화의 현장성’은 객관적 기준을 세우는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다.
- 8)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번역문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그 바탕에 있는 원문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된 문장부호를 부여하여 다른

뜻을 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9) 현대의 맞춤법 규정에 해당하는 국립국어원의 『문장부호 해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이 규정이 현재의 본문이 필요로 하는 형식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규정을 넘어서 본문의 필요에 따른 문장부호 붙이기를 해야 한다. 본문이 필요로 하는 문장부호를 찾아서 붙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표기 규정은 추후에 언어 현실을 바탕으로 보충될 것이다.

문장부호를 붙이는 실제의 작업을 위한 지침에 해당되는 결론:

10) 쉼표의 경우, 하나의 문장 안에서는 가장 상위의 층위에만 붙이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그러나 그보다 하위의 층위에 쉼표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면, 차 상위의 쉼표를 생략할 수도 있다.

11) 한 문장 안에 상위의 쉼표 자리와 하위의 쉼표 자리가 있을 경우, 상반점(:)과 쌍점(;) 등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작업자의 의향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영어 본문들이 이러한 문장부호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영어와 같은 외국어의 방식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문체가 필요로 하는 형식을 찾아서 반영하는 일이다.

12) 모점과 같은 전통 시대의 문장부호는, 아날로그적으로 문장이 진행되는 그 시점에서는 옳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옳더라도, 문장 전체로 볼 때 문장 구조를 드러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이것은 문장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문장의 구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문장부호를 붙여야 하고, 의미 전달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문장부호를 붙여야 한다.

13) 느낌표 규정에서,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어구,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에 쓴다.”고 했는데, 성경 본문이 필요로 하는 ‘강한 느낌’은, 작업자의 느낌에서 근거를 찾을 일이 아니라, ‘발화의 현장성’을 바탕으로, ‘본문이 필요로 하는 문장부호’를 찾아야 한다.

<주제어>(Keywords)

문장부호, 쌍점, 쌍반점, 성경 문체, 문체에 맞는 형식, 발화의 현장성.

punctuation marks, colon(:), semicolon(;), Bible style, Format appropriate to the writing style, Situation of utterance.

<참고문헌>(References)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2005.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신약전서 개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9.
- King James Version, 1611, https://www.kingjamesbibleonline.org/1611_Genesis-Chapter-8/ (2024. 1. 19.).
- King James Version, 1769, <https://www.originalbibles.com/1769-king-james-bible-benjamin-blayney/> (2024. 1. 19.).
- The Greek New Testament, 4th,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 국립국어원, 『문장부호 해설』, 서울: 국립국어원, 2014.
- 권의현, “2023 성서사업 보고”, 『성서한국』 69:4, 2023.
- 나채운, “개역성경, 개정판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미션매거진』 2007. 9. 29., http://www.missionmagazine.com/main/php/search_view.php?idx=1467 (2024. 1. 23.).
- 나채운, 『우리말 성경 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96.
-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개정의 필요성”, <https://youtu.be/j0u5FYQ-Lw4?si=6roXOdnJAHQe9Ds> (2024. 1. 23.).
- 박동현, “한글 성경 번역과 보급의 역사”, 대한성서공회 편, 『한글 성경 번역과 보급의 역사: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5.
- 이환진, “<서평> Translation That Openeth the Window: Reflections on the History and Legacy of the King James Version” (David G. Burk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3,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9), 『성경원문연구』 29 (2011. 10.), 179-205.
- 전무용, “성서 번역과 국어 문체 - 쉽표와 인용법을 중심으로”, 왕대일 편,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 주석과 성서 번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389-412.
- 한국어문학회 편, 『고전소설선』, 서울: 형설출판사, 1984.
- 한혜인, “국내 성경, 37년 만에 개정된다”, 『데일리굿뉴스』 2021. 7. 1.

<Abstract>

Preliminary Discussion on Adding Punctuation Marks to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Moo-Yong Jeun

(Former Secretary of Translation Department,
Korean Bible Society)

For this study, we searched for places in the text that show typical situations, considered the punctuation marks for those texts, and then looked at ways to add punctuation marks to the entire Bible text. I think this study offers clues about the things to consider when adding punctuation marks to the text of the Bible.

Concluding principles for punctuation:

- 1) Consider a format that fits the style of the Revised Version text.
- 2) Think about the punctuation marks needed in the text on the one hand and the ones needed by modern Bible readers on the other. Then determine the direction for the current work between these two different needs.
- 3) As the base principle, faithfully insert punctuation marks wherever necessary.
- 4) Limit insertions to the minimum considering today's Bible readers. This could be a *realistic alternative*, and in a stricter sense, a *transitional measure*.
- 5) Based on the perspective that punctuation marks are forms required by the content of the text, set standards as objectively as possible and avoid subjective standards such as the writer's intention.
- 6) Add punctuation marks according to consistent grammatical standards rather than removing or adding them based on subjective judgment that there are too many or too few of them in the text. Grammatical consistency is an important point of consideration.
- 7) The situation of utterance can become a perspective that establishes objective standards.
- 8) Ultimately, the current translation becomes the standard for judgment. But without considering the underlying meaning of the original text, punctuation marks may be added incorrectly to deliver a different meaning in the end.

9)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s *Punctuation Commentary*, representing modern orthographic rules should be used as the standard, but when its rules do not sufficiently support the forms required by the current text, punctuation marks need to be added beyond the given rules to address the needs of the text. Search for the punctuation marks needed in the text and add them. In this case, notation rules will be supplemented later based on linguistic reality.

Conclusions that provide guidance for the practical task of punctuating the text:

10) In case of commas, placing them only at the highest level within a sentence is a way to reduce confusion. But when there are cases where a comma cannot be omitted at a lower level, the comma at the next higher level can be omitted.

11) If there are an upper position comma and a lower position comma in a single sentence, use of semicolon (;) and colon (:), etc can be considered. This is not based on the worker's will. Although English texts use these punctuation marks, this is not to follow the style of foreign languages such as English, but to find and reflect the form required by the Korean Bible's writing style.

12) Punctuation marks from the traditional era like the base point may be used correctly when the sentence progresses in an analog manner. But even if they are partially correct, they may prevent readers from capturing the sentence structure as a whole, and hinder their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entire sentence. Punctuation marks should be added to reveal the structure of the sentence and in ways that help convey the meaning.

13) Rules for the exclamation mark states, "It is used in phrases expressing strong feelings, statements, imperatives, and petitions." In case of the Bible, discernment of *strong feelings* should not be based on subjective judgment but on the situation of utterance so as to find the punctuation mark needed by the text.